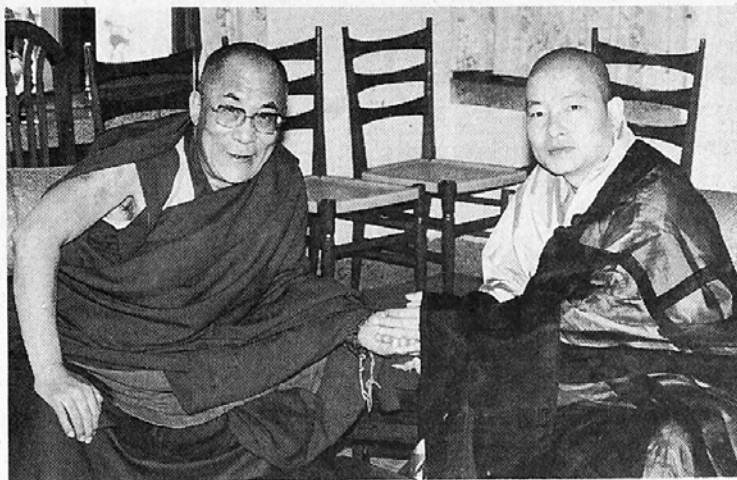


- 한국의 불교계 지도자들은 '티벳문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불교인들에게 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 티벳은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인도 중국이랑 강대국 사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만일 티벳에 평화의 기운이 퍼진다면 티벳은 아시아의 주변 나라들에게 협력하고 이익을 가져다 주는 나라가 되었을 것임

하는 것의 포기를 의미합니다. 다시말하자면 순수한 자비심에서 우러난 행위와 노력이 바로 아힘사(무저항) 또는 비폭력의 참뜻이라 하였습니다.

본인은 비폭력 운동의 실행이야말로 인간성 회복의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착함과 자비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착함과 자비의 본성이 비폭력이므로 비폭력은 바로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폭력은 이런점에서 인간의 본



◇ 달라이라마(左)와 흥선스님(右)의 대담 장면.

- 한국티벳 불교친선협회 회장 흥선 ○
- 스님이 달라이라마의 초청으로 지난 ○
- 8일부터 19일까지 인도·티벳지역을 ○
- 답사하고 돌아왔다. 스님은 인도북부 ○
- 지역 달랑살림에 위치한 왕궁에서 달 ○
- 라이라마를 만나 대담했다. ○
- (편집자 주) ○

흥선스님이 인도에서 만난 달라이라마

“불살생·비폭력은 인간성회복 지름길”

생명에 대한 자비심으로 인권·환경문제 해결해야

니다. 그러나 지금은 핵까지로 변해 주변 나라에 불안감을 조성시키고 있습니다. 본인은 한국의 불교도들이 티벳의 고통스런 현실에 대해 관심과 걱정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기쁘기 한량없습니다. 티벳의 자유는 불교의 가르침이 지속될 수 있도록 보장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를 상실 하였으므로 불교의 수 많은 유산들이 상처를 입고 있으며, 내지는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한국의 불교도들이 티벳에 보여주고 있는 관심과 협조는 시의 적절한 것이며 이성적인 자세라 봅니다. 모두가 불국토를 건설하는 데 회합되리라 생각합니다.

성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특히 세상을 살면서 상호의 존의 진리를 망각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더불어 살 수 밖에 없는 존재란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바로 연기적 실존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를 인식한다면 이념과 제도가 다르다해서 남을 압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이면서도 보편타당한 책임감을 형성시키는 일입니다. 따라서 직접 해를 가하고 폭력행위를 하는 어느 한쪽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까르마(업)와 미혹의 힘으로 야기된 하나의 생명이라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업과 미혹에 의한 운회는 뿌리깊은 미혹을 단절시킬 때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해탈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가지의 미혹(탐욕·성냄·어리석음)과 공극의 무명 혹은 무지 내지는 우리의 의식 속에 저장된 일체의 미혹은 파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여여하고 번뇌의 소멸로 인한 청정한 마음을 니르바나(열반) 또는 자유의 상대인 해탈이라 하는 것입니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것은 내적 비무장과 상호연관하여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불교도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공통의 관심사라 할 것입니다.

또한 인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일체의 중생을 위한 사랑과 자비가 구현되어야 합니다. 일체의 만물은 행복을 추구하고 고통을 싫어합니다.

이것은 모든 존재의 유일무이한 본성입니다. 만일 우리들이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환경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

만 종교적 수행을 떠나서 단순히 먹고 자고 걷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단순히 세속적인 삶의 습관을 유지하기 위한이라면 이것은 종교적 수행과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사회를 위해 교육과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결국 정치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따라서 종교와 정치는 함께 갈 수 있고 함께 가야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그러나 종교제도의 수장이 정치체제의 수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잘못이라 봅니다.

- 한국을 방문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독립과 불교유적 보존등 티벳 미래에 대한 한국 불교도들의 깊은 관심에 감사”

- 불교의 불살생·비폭력주의에 입각한 정신으로 1959년 이래 티벳독립운동을 이끌어 오셨으며, 그 업적을 인정받아 1989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불살생·비폭력 정신이 현대사회에 어떠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비는 인간의 본성

▲ 몇몇 나라에선 비폭력을 단순히 어떤 폭력적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라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인은 단순히 폭력적인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비폭력이라 보지 않습니다. 비폭력은 폭력이나 무자비한 행위에 의해 상처를 주거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

다. 오염된 마음이 정화된 상태인 니르바나를 정각이라 하거나 성불이라 합니다.

- 세계의 평화와 인권문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교도들의 자세를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은 생명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모든 권력의 근원을 보게 됩니다. 불교는 자비의 실천을 강조하는 만큼 생명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성냄과 질투같은 세속적인 고통과 번뇌를 제거하고 정신적인 평화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내적 비무장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한편 외적 비무장을 통해 현실적인 폭력을 줄이고자

입니다. 지구의 환경은 우리 모두의 가정과 같습니다. 만일 우리들이 우리의 가정을 혼란에 빠뜨리거나 상처를 입힌다면 그로인한 고통은 우리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한 인간이 가정을 보호하듯 우리 자신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 환경을 보호해야 합니다.

- 불교지도자나 정치지도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본인은 종교의 제도와 교리가 정치적으로 공동보조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치란 인간활동의 한 부분입니다. 불교에서도 걷고 자고 먹는 것 등의 세속적 습관을 그대로 교육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정말 한국의 불자들이 법우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 세계적인 불교지도자로서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요.

▲ 본인은 꿈 속에서도 평범한 승려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본인 이상도 이하의 존재도 아닙니다. 위대한 스승 석가세존의 추종자로서 본인은 진실로 일체 중생의 안락을 위해 일하고 싶으며, 그러기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데 진력하고자 합니다.

이것 이외에 다른 어떤 것에 대한 욕망도 없습니다.

한국방문 기회 오길

▲ 오래전부터 한국방문을 원했습니다. 한국의 많은 법우들도 본인의 방문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정말 한국의 불자들이 법우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 세계적인 불교지도자로서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요.

▲ 본인은 꿈 속에서도 평범한 승려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본인 이상도 이하의 존재도 아닙니다. 위대한 스승 석가세존의 추종자로서 본인은 진실로 일체 중생의 안락을 위해 일하고 싶으며, 그러기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데 진력하고자 합니다.

이것 이외에 다른 어떤 것에 대한 욕망도 없습니다.

만 화

법구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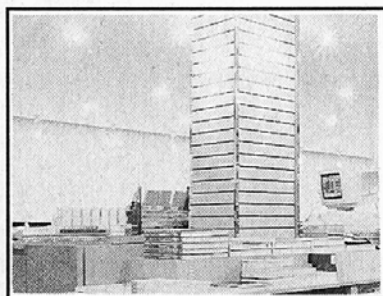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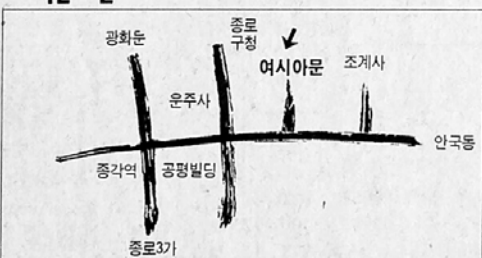
• 어리석음의 장계 몸도 자기것이 아닌데



불교·법·행·덕

책방여시아문으로 오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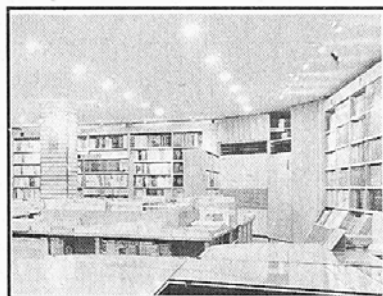
오시는 길



국내 최대의 불교전문 서점 (5천 여종, 3만 여권)

- 불교관련서적(역사, 철학, 사회과학 등 망라)
- 영인본, 회귀본, 절판본, 열람 가능
- 편리한 도서안내
- 편안한 독서 공간
- 도서상품권 취급

- 전자책의 만남(격월)
- 계절별(분기별) 책잔치 개최
- 통신판매-전화, 팩스 주문 가능
- 컴퓨터를 이용한 편리한 도서 검색



• 도서회원제 운영 (1995.4.1부터 시행 예정)

- 회원특전
 - 현대불교신문사, 도서출판 여시아문 발행도서에 대한 회원 우대 사은권 제공
 - 소식지를 통한 도서 정보 제공
 - 통신 주문
 - 전화 도서 목록 검색 서비스 (737-0695)
 - 책방 여시아문·현대불교신문사 주최 행사 우선 초대